



전북 금융산업 발전협의회 전북도 금융산업 육성 촉진을 위한 '제3차 전북도 금융산업 발전협의회'가 지난 26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이형규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도내 24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전북도가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도내 금융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해 심층 있게 논의했다.

순창군, 아기울음 소리 전국 3위

2014년대비 출산율 0.331명 늘어 개선도 전북 1위

순창군의 출산정책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

군은 행정자치부가 각 지자체의 합계출산율과 2014년대비 출산율 개선도를 발표한 결과 순창군이 전년 대비 출산율(여성 한명당 아이 수)이 0.331명 늘면서 개선도 전북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국단위에서도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제군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실제 순창은 2015년 출생아수가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2014년 148명에서 38명이 증가한 186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특히 순창군은 지난해 대비 개선도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해 군이 추진하는 출산정책이 차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입증했다.

군은 실제 아이낳기 좋은 순창을 군의 주요사업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조례를 개정해 첫째아이 출생 시 기존 220만원 지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둘째는 460만원, 셋째는 1,00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1500만원을 지원한다.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지원대상 범위를 출생일 기준 부모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군 거주자로 조건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군은 난임부부 검사비 지원, 미숙아 선형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입산부 이송비 지원, 기저귀 교체분유 지원,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영양플러스 보충 식품 제공 및 교육실시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은 아이낳기 좋은 세상 순창군 운동본부에 결성해 민간차원에서 아이 낳기 운동을 추진하고 신생아 출산 시 지역신문에 축하 기사를 게재하는 등 출산장려를 위한 민간네트워크도 강화했다. 또 최근 터미널과 강천산 휴게실, 도서관 등 다중이용 시설에 모유수유실을 설치하는 등 산모들이 지역사회에서도 편안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마련에도 공을 들였다.

순창군은 올해 7월 '제5회 인구 의 날' 행사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극복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외국인주민' 전북 총인구의 2.3%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 4만3141명 전국 9번째... 사회적 인식변화·지원정책 필요

전북 총인구 중 외국인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2%를 넘어섰다. 이처럼 지역별 인구현황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구성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및 생활안정화 정책마련 등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26일 행정자치부의 '2007년~2015년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주민등록 기준)' 통계자료에 따르면 취업·결혼 등으로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취득한 이른바 '외국인주민' 비율은 전북이

4만3,141명으로 전북 전체 인구의 2.30%에 달한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보면 9번째 해당했다.

시도별 현황을 보면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도로 지난해 기준 55만4,160명의 외국인주민이 머물렀다.

이어 서울(45만7,806명), 경남(10만 8,375명), 인천(9만1,525명), 충남(8만 3,524명), 경북(7만7,255명), 부산(5만 7,807명), 전남(4만8,473명), 충북(4만 8,002명)의 순이다.

또한 울산(3만8,183명), 대구(3만 7,610명), 강원(2만6,657명), 광주(2만 6,536명), 대전(2만5,190명), 제주(1만 9,903명), 세종(4,302명) 순으로 많았다.

결혼이민 등 외국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 자녀의 가파른 증가세와 달리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지원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현황에서 의 중론이다.

가령 전북 다문화센터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내국인 가정 자녀들 간 '보이지 않는 벽'은 좁혀질 줄

허지 않아 저학년 사이에서 무리가 뚜렷하게 나뉘는 경향이 나타난다"면서 "아이들의 이 같은 인식은 어쩌면 어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투영된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른들이 우선 다문화가정에 대해 포용력을 갖고 이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며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주민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었다. /고민형 기자

전북도, 콜레라 방역활동 강화

최근 타 지역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자 전북도가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26일 도에 따르면 콜레라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신속한 상황대응 및 관리 위해 콜레라 방역대책반을 가동했다.

또 콜레라 의심 환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질병정보 모니터링도 강화했으며, 각 시군과 24시간 업무연락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콜레라 예방 홍보(손씻기·물 끓여먹기·음식 익혀먹기) 등도 펼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수 차례 설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면서 "콜레라가 의심되면 지체없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3차 분양 가속화

한국축산·실크앤스페이스·대풍수산 입주 투자양해각서 체결

전북도 등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들과 투자 각서를 체결했다.

26일 도와 농림축산식품부,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에서 (주)한국축산, (주)실크앤스페이스, 대풍수산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투자양해각서 체결식에는 김희진 (주)한국축산 대표, 김영우 (주)실크앤스페이스 대표, 함승우 대풍수산 대표와 함께 농식품부, 전북도,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축산물가공 및 도시락 제조기업인 (주)한국축산은 '이후의 건강한 세상' 도시락 브랜드로 쿠팡·위메프 등 온라인 판매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태국과의 수출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유망 기업이다. 8월 창업한 외식·식품 유통기업 (주)실크앤스페이스는 7년 연속 매출액가이드에 선정된 프랑스 파리의 태국요리 전문레스토랑 '실크앤스페이스'의 국내 경영을 위해 설립된 회사다. (주)실크앤스페이스는 국내외 식품시장을 시작으로 세계 태국 식품시장을 시작으로 세계 태국 식품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마케팅 네트워크와 생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결정했다. /고민형 기자·익산=장영원 기자

대풍수산은 수산물 가공 창업 2년차의 신생기업으로 냉동순살 바지락부터 바지락분말조미료 등 해양수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식품을 개발 중에 있다. 창업 1년 만에 3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9월에는 영어조합법인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고성봉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은 "이달부터 개시된 3차 분양 필지는 공장용지, 연구시설뿐만 아니라 물류시설 용도까지 포함해 간편식 생산업과 외식업 등 원료조달 및 유통에 유리한 환경을 찾는 식품기업들의 입주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아시아 10개국에 '기록관리' 노하우 전수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내달 국제 연수과정 통해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10개국에 기록관리 노하우를 전수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자부는 '2016 세계기록총회'와 연계된 국제 기록관리 연수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성과와 경험 등을 전수할 계획이다.

다음달 4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수과정에는 우즈베키스탄 4명, 아제르바이잔 3명, 베트남 3명, 필리핀 3명, 몽골 6명, 미얀마 3명, 부탄 3명, 캄보디아 3명, 인도네시아 3명, 라오스 3명 등 아시아의 기록관리 전문가 34명이 참여한다.

특히 연수생 중에는 쿠차로바 우즈베키스탄 국가기록원 부원장, 리티사 라오스 국가기록국 부국장, 예민탄 미얀마 국가기록국 부국장 등 다수의 고위 공무원이 포함돼 있다.

이번 연수과정에서 ▲대한민국 기록관리·기록문화 전통의 우수성 ▲디지털 기록관리·전자기록물 등의

최신 동향 ▲대한민국 최첨단 기록관리 기술 ▲대한민국 기록전·산업전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뉴스

추석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점검

전북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지난 26일 도에 따르면 재난우려가 있는 서민공동주택과 터미널·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12일간 안전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건축·토목·전기·가스·소방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이뤄지게 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시설물 구조적 안전성 ▲시설물 종류와 등급별 방재 시설 설치기준 준수 여부 ▲전기·가스·기계설비 등 안전분야 ▲재난대비 매뉴얼 작성·비치 등이다. /뉴스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이한교(1949.2.22 생 2007.4.17.사망)의 재산 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법원 허윤범 판사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 사건번호: 2016년단654 상속한정승인 판사 허윤범
- ▶ 피상속인: 망 이한교(1949. 2. 22 생 2007. 4. 17. 사망)
- ▶ 최후주소: 전북 임실군 삼계면 홍곡리 547
- ▶ 공고인: 이의경
- ▶ 한정승인수리일: 2016. 8. 19
- ▶ 공고기간: 2016. 8. 29. ~ 2016. 10. 28.
- ▶ 연락처: (청구인 이의경의 주소지) 김포시 송파로 89,114동 902호 (풍무동,장릉마을)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